

무주 초리뽕뽕놀이축제 개막

2월 10일까지 넝쿨마을 일원서 썰매타기·밤 구워먹기·송어잡기 등

제2회 무주군 적상면 초리뽕뽕놀이축제가 지난 22일 막을 올렸다. 초리뽕뽕놀이축제는 초리넝쿨마을 협동조합이 주관해 열리는 것으로, 오전 11시부터 개최된 개회식에는 황인홍 군수와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주민, 관광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제2회 무주군 적상면 초리뽕뽕놀이축제가 지난 22일 막을 올렸다.

황인홍 군수는 "초리마을은 무주가 자랑하는 마을로 가는 겨울 축제의 장이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손꼽은 12월 추천 여행지"라며 "추억에 젖어 재미에 빠져 그 명성 꼭 확인해보시라"고 전했다.

제2회 초리뽕뽕놀이축제 2월 10일까지 계속되며 썰매타기와 밤 구워먹기, 와이어타기, 맨손 송어잡기, 기차놀이, 먹거리 체험 등은 유료로, 제기차기와 팽이돌리기, 장기자랑, 노래자랑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올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했다"라며 "이 계절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를 초리마을, 뽕뽕놀이축제에서

느껴보시라"고 전했다. 초리뽕뽕놀이축제는 초리넝쿨마을 주민들이 의기투합해 지난해 처음 개최하기 시작한 것으로, 12월 23일~2월 25일까지 8,235명이 방문해 4천 7백여만 원 성과를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전라권에서는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하는 12월 추천 여행지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무주군 적상면 초리넝쿨마을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의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 웰촌(www.welchon.com)'과 무주군 홈페이지(마을로 가는 겨울축제)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하반기 퇴임식이 지난 21일 군청 강당에서 열렸다.

진안군, 올 하반기 8명 퇴임식 개최

진안군 하반기 퇴임식이 지난 21일 군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퇴임자는 김성권(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김홍섭(건설교통과), 서영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한권(안전면), 원철연(진안읍), 윤석우(시설공원사업소), 전용희(맑은물사업소), 전종철(건설교통과)씨 등 8명이다.

퇴임식에 참여한 이항로 군수와 송용호 공무원노조위원장, 동료 직원들은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고 퇴임하는 퇴임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퇴임자들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후배공무원들에게 남기는 영상메시지와 후배 공무원들이 퇴임자에게 전하는 축하 영상메시지가 상영되었고, 퇴임자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군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항로 군수는 "지난 세월 선배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진안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청년 일자리 국비 공모 선정

4개 사업 5억 3천만 원 확보

무주군이 20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39세 이하 청년 취·창업 시 인건비 및 창업 지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것으로, △무주군은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1500청년 창업희망공간 지원사업, △농촌코디네

이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선정됐다.

무주군은 확보한 사업비를 기반사업 청년들의 일 경험과 진로교육 컨설팅을 지원해 민간취업과 연계시켜 나갈 방침으로 내년 1~2월 중 지원 대상 선발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19년 청년일자리 예산은 이번 공모 사업비를 포함해 총 6억 5천만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2018년 대비 72%가 증가한 것이어서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충

내년 예산 84억 투입

장수군은 지난 21일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농업기반시설 정비예산 84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시설정비에 나섰다.

2019년 분야별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은 농촌마을 정주기반 개선을 위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7억원, 저수지

및 용·배수로 개선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7억원, 발기반정비 4억원, 기계화경작로 2억원, 한밭대비용 수개발 4억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 15억,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개선 5억으로 7개 사업 등이다.

앞서 군은 올해에도 필수적인 영농기반시설 신설·정비를 위해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국가 암검진 적극 홍보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을 경)는 겨울철 농한기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국가 암검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국가 암 검진 홍보에 나섰다.

보건소는 올해 국가 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해 개인별 문자와 전화,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경로당 보건사업 시 국가 암 조기검진 안내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지역 9만 4,000원, 직장 8만9,000원)이하에 해당되는 주민은 전국 어디서나 국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무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2년마다,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으로 2년 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으로 해마다 분변검사를 받으면 된다.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 시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는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최대 220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 암은 조기에 발견·치료할 경우 90%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기한 내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영수 군수 '지자체 최우수경영부문 대상'

예산 4000억 목표로 발로 뛰는 행정 실현

이웃돕기 행사 등 추진 지역 화합 앞장

장영수 군수가 지난 21일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전라북도 인물대상'에서 '지자체 최우수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기자협회와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국제뉴스 전북취재본부, 전라북도인물대상 조직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장 군수는 민선 7기 장수군 4000억 예산시대를 목표로 발로 뛰는 행정을 실현하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지난 2006년부터 8년간 도의원으로 재직하며 지방주민자치 활동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왕성한 입법 활동과 상임위 활동으로 최우수 도의원에 4회 선정, 군 짧은 청

년층과 역량을 결집해 정인 대보름 행사와 이웃돕기행사 등을 추진해 지역발전과 화합에 앞장서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장영수 군수는 "오직 장수군 발전을 위한 고민과 활동이 가져온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동네,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동네, 아이 키우기 좋은 '풍요로운 미래의 땅, 환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라북도 인물대상'은 매년 정치·행정·의료·건설·체육·기업·문화 예술·봉사 등 20개 분야에서 전북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영수 군수가 지난 21일 '2018 전라북도 인물대상'에서 '지자체 최우수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